

■ **겨레일보 특별기획-러시아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4부/ 한국어 교육의 전성기(2)

러 이슬람 본토, 카잔에 부는 '한국어' 열풍

레닌 톨스토이 수학한 카잔연방대, 유라시아 한국학 연구중심으로 부상
국가적 관심에 대학측도 열성 최근 한국학 상승세 중국 일본 따돌려



▲ 카잔연방대학교 전경. 1804년 러시아 황제의 명령으로 카잔 제국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고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선 후 레닌 카잔국립대학교로 변경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후 카잔 연방대학교로 개명하였다. (오른쪽 사진) 카잔 연방대학의 후원자 중 한 명인 19세기 저명한 카자흐스탄 계몽주의자 '장기르 한'의 기념비. 아랍어, 페르시아어 및 투르크어로 된 6개의 귀중한 고대 원고를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은 물론 동양학부 도서관의 기금을 확대하여 동양학자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겨레일보=박종권기자 www.koreans.ru>
러시아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레닌은 왜 카잔대학교에 들어갔을까? 또 왜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 대문호 톨스토이도 카잔대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했을까? 이들은 카잔대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

이에 대해 카잔시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최근 대학 입구에 설치된 19세기 저명한 계몽주의자 '장기르 한'의 기념비(위 사진)에서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다. 카잔 시내에는 서울처럼 중간에 불가강이 가로지르고 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카잔에 사는 사람들은 유럽과 아시아로 나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예전에는 카잔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

카잔은 유럽으로만 창을 연 페테르부르그도 아니고 내륙에만 있는 모스크바도 아니었다. 더욱이 아주먼 극동도 아닌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당시는 동서양의 중심지로 인식되었다.

대학에 설치된 기념비의 장기르 한(1803

-1845)은 유럽 교육을 받았으며 러시아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및 일부 독일어 등 8개국어에 능했다. 그는 자주 카잔대학을 방문했으며 아랍어, 페르시아어 및 투르크어로 된 6개의 귀중한 고대 원고를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은 물론 동양 학부 도서관의 기금을 확대하여 러시아의 동양 학자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카잔연방대는 결국 서양만이 아닌 동양학의 보고로서 당시에는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레닌이나 톨스토이가 충분히 수학을 하고 혁명을 할만한 또 세계적 대문호로 성장할만큼 배울만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한인 유학생들에 의해 <러한소사전>이 카잔에서 발간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토대위에 카잔에 최근 한국어와 한국학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카잔연방대에 2003년 한국어강좌가 처음 개설된 이후 국제교류재단에서 객원교수가 파견되었으며 그리고 한국어를 비롯 역사

경제 전공이 개설되었다.

카잔연방대의 한국학 연구의 발전의 기초는 한국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하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구는 한국의 역사, 문화, 문학,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한편 대학을 비롯한 특목고를 포함 전체 한국어 학습학생수는 2015년 1백명에서 현재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5백15명이 수학하고 있어 거의 폭발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카잔에도 한류 바람에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일반 팬들도 급증해 수천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열린 한국문화경연대회에 러시아인들이 4백석 좌석에 5백여명이 관람하는 등 한류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

현재 카잔연방대 고영철 교수가 한국학 연구소장으로 한국학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

"카잔은 이제 유라시아 한국학 연구중심"



러시아내 동양과 서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카잔지역이 유라시아 한국학연구에 있어 **셋별로 떠오르고 있다.** 2천년대초 카잔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판도가 바뀌었다. 카잔연방대에서는 한국어관련 학술대회가 1년에 2차례 이상 열려 한국학 붐이 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 러시아인들도 수천명 한류에 열광하고 있다. 그 상황을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고영철교수에게 들어본다.

- 카잔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카잔연방대학교는 2008년9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하기 시작한 후, 2006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객원교수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러시아 대학중 유일한 대학이다. 그 동안 파견된 객원교수들이 역할을 충실히 했고 아울러 대학 측도 이를 인정하여 한국정부와 한국 파견교수 그리고 대학이 삼위일체가 되어 한국어 및 한국학을 발전시키게 됐다.

- 세종학당 추진상황과 그 배경은?

주러시아연방한국대사관이나 주러시아한국문화원이 공히 러시아 중부지역의 한국문화 전 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카잔 세종학당이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개원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카잔에는 중국과 터키의 총영사관과 공자학당, 피테학당, 이슬람학당이 개설되어 있다.

- 카잔지역 공자학원과 일본어교육에 비해 한국어교육의 실정은?

한국보다 먼저 시작한 중국어와 공자학당의 경우 학생들이 감소했다. 이유는 학생들을 자극하는 새로운 유인적 아이템이나 교육방법 그리고 교원들의 의지가 없다. 일본의 경우도 객원교수를 파견하고 있지만 현재 백여명의 학생만이 공부하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대학 측이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대사관이 카잔연방대학교에 적극적 관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학기 3차례 대사관 정부공사와 전임 대사의 특강 그리고 올해 3월 2회의 한국대사의 특강 및 대학 대표자 면담 등은 그 예다.

이에따라 카잔연방대학교에서는 러시아의 다른 대학과 다르게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전문분야가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문에서부터 경제, 역사, 통번역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다른분야인 아태경제, 국제관계, 국제경제, 지역학 전공분야에서 한국어를 제1 또는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석사과정 '세계정치 및 국제비즈니스학과'에 한국전공이 개설되어 26명의 학생이 수학과 있고 박사과정에는 3명이 전공을 하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2016년부터 카잔지역 특목고 3곳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한국어 학습학생수는 2015년 100명에서 2018년 현재 515명이 수학과 있다.

-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의 그간 과정과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말한다면?

카잔연방대의 한국학 연구의 발전의 기초는 한국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하에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역사, 문화, 문학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카잔연방대 교수 8명과 한국대학 교수 2명이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주요학술지 논문 발표, 년 2-4회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러시아권 대학에서 사용할 한국역사, 한국문학, 한국역사 교재 편찬을 준비중에 있다. 매년 10월말에는 러시아 및 따타르스탄 지역 초중고의 역사, 세계사, 사회, 지리, 미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국립 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 교사세미나를 통해 러시아 쉬콜라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내용에 대한 발표와 시정을 위한 제안하면서 한국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전문가와 한국문화 관련 단체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10개 자매대학에 매년 40명의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고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매년 대학생 10여과 고등학생 6명을 단기 연수로 파견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4월말에는 케이팝대회, 12월초에는 한국어 경시대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대회가 한국어 올림피아드로 격상되어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카잔연방대학교뿐만 아니라 노보시비르스크, 우랄, 나베르주노첼니, 바쉬키르, 블고그라드대학교에까지 한국학의 지평을 확대하여 한국학의 체계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

- 그동안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나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지금까지 일부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현지실정의 이해부족, 현지 거주 한국인들간의 불편함 아울러 현지의 열악한 주거 상황 등으로 시간적 정신적 소비를 했지만 과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국어 한국문화를 포함한 전체 한국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고영철 교수교육학박사 ■ 1989년-성신여대, 세종대, 장로회신학대, 한국체육대 외래교수 ■ 1994년-알마티국립대학교, 러시아국립사회대학교, 국립경영대학교 교수 ■ 2015년-현재 카잔연방대학교 한국어전공 교수 ■ 2016년- 현재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장



▲(위사진) 한국학연구소가 카잔연방대에도 자리를 잡고 성장가도에 들어섰다. (아래사진)하단은 미리 앞서 개설한 중국학 연구소 팻말. 상단 팻말 에 알타이와 중국을 하나의 학과로 모아놓았다는게 이색적이다.



▲ 올해 7월 카잔연방대에서 개최된 한국학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어와 한국학 전반적에 걸쳐 심도 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다.